

## 한국 초·중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교과 성적

이순주(한밭대)  
이상철(경기도교육청)

**Название статьи:** Анализ академической успеваемости учащихся начальной и средней школы Кореи

**Авторы:** Ли Сун Дж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Ханбат, Корея; Ли Сан Чоль, Департамент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Корея

**Резюме:** Целью дан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является анализ разницы успеваемости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ачальной школой мы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и академические достижения в распределении по полу на основе школьной запис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Далее были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ны различия успеваемости между городскими и сельскими районами и соотношение числа учащихся в жилых районах по группам высокого и низкого уровня успеваемости. В статье приведены результаты эт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Даже с помощью различ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контрмер, уменьшающих разницу в академических способностях по полу и жилой площади, до сих пор по-прежнему существует проблема гендерных различий в академической успеваемости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гендерные различия не обнаруживаются в академической успеваемости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 начальных и средних классах. А в группах учащихся с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академических достижений очень четко представлены гендерные различия, начиная с 5-го класса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сравнения академической успеваемости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идна взаимосвязь успеваемости с районами проживания в городе или же сельскими районами и выявлено, что степень разницы в успеваемости очень значительная и сильно зависит от проживания в городе или селе.

**Ключевые слова:** учебная успеваемос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жилой район, гендерные различия, городских районах, сельских районов, распределение  
**주제어:** 성적, 한국어, 거주 지역, 성별, 분포

### I. 서론

2012년 11월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한다(브레인미디어, 20121127). 이것은 한국의 교육이 “1등만 칭찬받는 교육”,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성공만을 위한 교육”만을 향해 가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학업성적이다. 학업성적은 학생들의 생활과 진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행복감 등을 결정짓는 다시 말해 청소년들의 삶의 큰 부분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많은 교육학자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갖가지의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의 학업성적은 주로 환경과 학습자 자신 그리고 수업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이중 학습자 변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전적 요인 그 중에서도 성차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즉 학업성적에 있어 성차 문제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 오고 있으며 연구 결과 또한 상당히 다면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그러나 수학과 과학 그리고 언어영역 교과에서 성차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점은 많은 연구 결과들(Aiken, 1986-1987; Hyde, Fennema, & Lamon, 1990; Maccoby & Jacklin, 1974; MacDonald, 1980; Thomas, 1989; Wong, Lam & Ho, 2002; 권오남, 임형, 1997)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많은 교육학자들은 이점을 연구의 주요 쟁점으로 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추세에 의해 학습자의 성별적 특성은 학업성적 결정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여러 교과 중에서 특히 언어영역 그중에서도 한국어 교과 성적에서 보이는 남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적은 성별 간 차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오랜 기간 반복해서 제기하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많은 연구 결과(MacDonald, 1980; Thomas, 1989; Wong, Lam & Ho, 2002)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학생은 문학이나 언어학에서 우수하며 남학생은 수학이나 과학에서 뛰어나다고 한다. Feldman(1974)은 외국어, 역사, 예술에서는 여학생이, 수학, 물리, 화학, 회계학에서는 남학생의 성취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남성적 학문과 여성적 학문을 구분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MacDonald(1980)는 학교의 교과목에는 분명 성별 구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물리, 수학, 공학 등의 교과에서는 남학생이 그리고 언어와 관련된 교과에서는 여학생의 성취가 우수하며 이러한 현상은 남녀 학생들 각각이 높은 성취를 보이는 교과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강조하였다.

특정 교과에 대한 남녀 학생들의 성차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에 대해 Kahle 와 Meece(1991)은 ‘개인적 변인(Individual Variables)’과 ‘사회·문화적 변인(Sociocultural Variables)’ 등 6 가지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렇듯 학업성적에서 나타나는 성차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학자들이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바로 각 교과별로 남녀 학생 각각이 나타내 보이는 저조한 학업성적을 어떠한 교육적 처치를 통해 지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일 것이다. 즉 남녀 학생들 각각이 저조한 학업성적을 보이는 특정 교과에 대해 이들의 관심과 흥미

를 높이고 이것을 통해 그 교과에 대한 학업성적을 높임으로써 학업성적에서 나타나는 성차 정도를 좁힐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2010년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기초 및 교과학습진단평가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초·중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교과 성적에서의 성차를 분석하였다.

남녀 학생들의 성별적 특성과 함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손꼽히는 환경변인 중 지역 환경은 교육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학자들 또한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많은 연구들(Brooks-Gunn et al., 1993; Wilson, 1987, 1996; Dornbush et al., 1991; Duncan, 1994; Ainsworth, 2002; Duncan et al., 1997)이 각 지역의 사회경제수준은 그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학업성적과 지역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도농 간 학업성적의 격차 문제는 오래 전부터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이로 인해 농촌 인구의 도시로 이동, 사교육 문제, 학군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소득향상, 지방분권화 추진을 통한 농촌 개발 등으로 인해 농촌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21세기 현 시점에 있어 도시와 농촌 지역 학생들의 한국어 교과 성적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농촌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현되고 있는 갖가지의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들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나아가 지역에 따른 학업성적 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탐색하는 데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II.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0년에 실시된 기초 및 교과학습진단평가의 대상이었던 한국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학생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연구대상을 표집함에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 지역 간 변인을 최소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지역의 구분을 문화적·경제적 환경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학생들이 균등하게 연구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성별 학업성적의 차이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보려고 연구대상 중 각 교과별 학업성적이 하위 5%에 속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위집단을, 각 교과별로 100점 획득자를 대상으로 상위집단을 구성한 후, 이 두 집단 내 남녀 그리고 거주지별 학생의 비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낮은 점수대와 높은

점수대에서는 성별적 차이가 각각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이러한 성별적 차이가 점수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때 한국어 교과 성적에서의 남녀별 성차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반면, 거주지별 성적차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연구대상의 표본 수가 너무 적은 관계로 중학교 학생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집단의 성별, 거주지역별 구성

학교급	학년	성별		거주지역별		계
		남	여	도시	농촌	
초등	3 학년	681 명	620 명	606 명	695 명	1,301 명
	4 학년	681 명	610 명	595 명	695 명	1,290 명
	5 학년	657 명	626 명	655 명	629 명	1,284 명
중등	1 학년	113 명	106 명			219 명
	2 학년	118 명	95 명			213 명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0년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초 및 교과학습진단평가 중 한국어 교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학업성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평가는 학습진단평가로서 한국의 각급학교 학생들을 평가 대상으로 하며 학업능력을 평가하는 많은 조사, 연구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한국어 교과에 대한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 거주지역별 성적 차를 분석하였다.

## 3. 통계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검색 과정을 거친 후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초·중학교의 학년별 남녀 학생들의 한국어 교과 성적 차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검증을 실시하였고 거주지역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교과 성적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하위집단에서의 거주지별 성적차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chi^2$  검증을 통해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내 거주지별 학생의 비율이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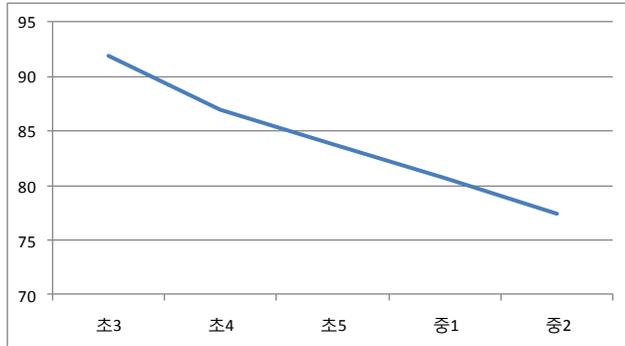
#### 1.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교과 성적에서의 성차 분석

##### 가.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년별 한국어 교과 성적 비교

한국의 초등학교 3, 4, 5 학년 학생과 중학교 1, 2 학년 학생들의 한국어 교과 성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성적을 비교 분석하였다.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한국어 교과 성적은 점점 더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성적차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따르면, 초등학교 3 학년 학생들의 한국어 성적 평균은 91.86 점, 4 학년은 86.90 점, 5 학년은 83.79 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점점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학교 단계에 가서는 1 학년이 80.64 점, 2 학년이 77.40 점으로 한국어 성적의 하향 정도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한국어 성적의 변화 양상은 [그림 1]을 보면 더욱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학년급과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한국어 성적 평균이 낮아지는 현상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한국어 교과의 학습 내용이 어려워지고 시험 문제의 난이도도 높아짐으로 인해 생겨나는 현상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각 학년별 전체 평균 점수가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이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표 2>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년별 한국어 교과 성적 비교

학교 급	학년	사 례 수	평 균	표 준 편 차	자 승 합 (SS)	자 유 도 (DF)	평 균 자 승 (MS)	F 비
초 등	3 학년	1301	91.8643	11.8612	71998.10	4	17999.526	114.31***
	4 학년	1290	86.9078	12.5330	677517.89	4303	157.452	
	5 학년	1284	83.7975	12.1583	749516.00	4307		
중 등	1 학년	219	80.6484	14.4559				
	2 학년	213	77.4038	16.3660				
total		4308	86.6895	13.1918				



[그림 1] 학년별 한국어 교과 평균 점수

### 나.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성별 한국어 교과 성적 비교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교과 성적에 있어 남녀별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여학생의 성적(93.25 점)이 남학생(90.59 점)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학년에서도 남녀 각각 평균점수가 85.55 점, 88.42 점으로 여학생의 한국어 성적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학년에서도 남녀 학생의 성적이 각각 81.43 점과 86.28 점으로 나타나 매우 큰 성적 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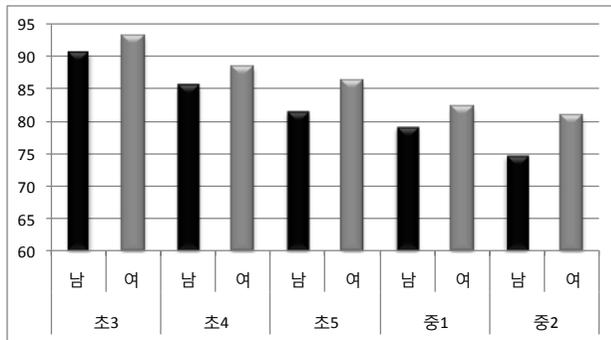
한편 여학생의 한국어 성적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 1학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한국어 성적 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중학교 2학년에서는 다시 여학생의 한국어 성적이 남학생보다 월등히 높은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남학생의 한국어 성적 평균은 74.72 점 그리고 여학생은 80.72 점으로 이러한 남녀 학생들의 한국어 성적 차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언어영역에서는 여학생의 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언어와 관련된 교과를 여학생들이 더 선호한다는 선행연구 결과(MacDonald, 1980; Feldman, 1974; Thomas, 1989; Wong, Lam & Ho, 2002)를 지지하고 있다.

<표 3> 한국어 교과 성적에서의 성차

학교급	학년	성별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t
초등	3학년	남	681	90.59	12.66	-4.09***
		여	620	93.25	1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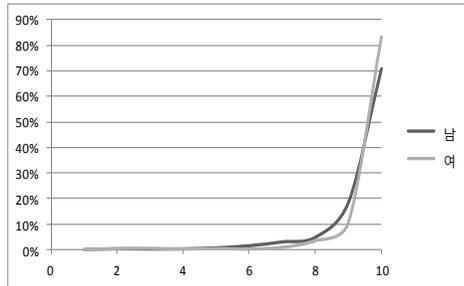
중등	4 학년	남	681	85.55	13.60	-4.18***
		여	610	88.42	11.03	
	5 학년	남	657	81.43	12.92	-7.32***
		여	626	86.28	10.76	
	1 학년	남	113	79.12	15.31	-1.61
		여	106	82.27	13.36	
2 학년	남	118	74.72	18.69	-2.81**	
	여	95	80.72	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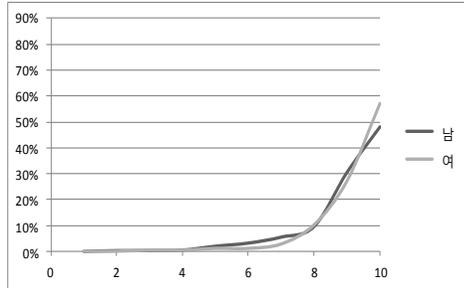
[그림 2] 한국어 교과 성적에서의 성차

#### 다. 한국어 교과 성적에서의 점수대별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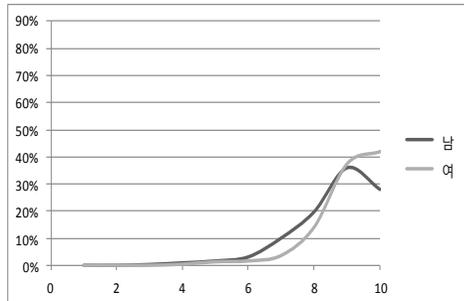
초등학교 3 학년부터 중학교 2 학년 학생들의 한국어 교과 성적에서의 점수대별 성별 분포를 다음의 [그림 3]~[그림 7]의 자료를 이용해 비교하면, 초등학교 3 학년과 4 학년에는 서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이 경우에도 90 점대 남녀 학생의 비율은 여학생이 훨씬 높았다) 초등학교 5 학년부터는 90 점 이상 고득점자의 경우 남녀의 차가 현격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초등학교 3 학년과 4 학년의 한국어 교과의 점수대별 분포 그래프의 모양은 거의 일치하였으나 초등학교 5 학년부터는 90 점대에서 남녀의 분포가 서로 엇갈리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어 교과에서 90 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는 현상이 초등학교 5 학년부터 본격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중학교 2 학년 단계에서는 90 점대에서 남녀 간 비율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80 점대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 보다 월등히 많았고 40 점 미만의 점수대에서는 남학생의 분포가 다소 있었던 반면 여학생 중에는 40 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학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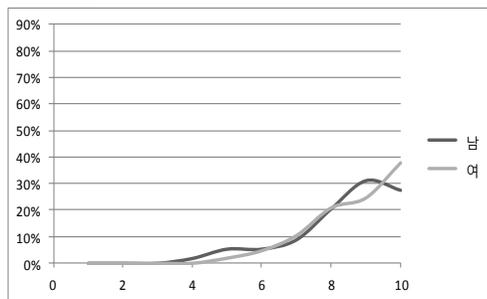
[그림 3] 초등학교 3학년 한국어 성적의 점수대별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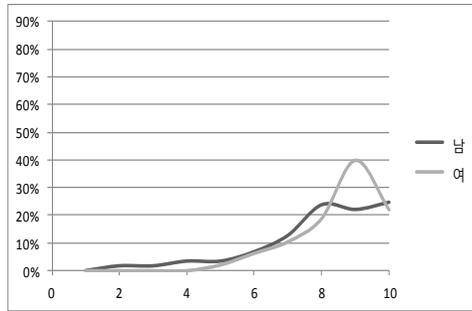
[그림 4] 초등학교 4학년 한국어 성적의 점수대별 성별 분포



[그림 5] 초등학교 5학년 한국어 성적의 점수대별 성별 분포



[그림 6] 중학교 1학년 한국어 성적의 점수대별 성별 분포



[그림 7] 중학교 2학년 한국어 성적의 점수대별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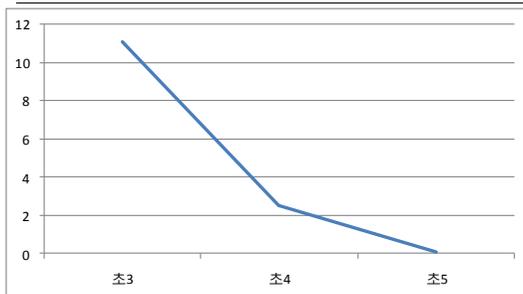
## 2. 초등학교 학생들의 거주지역별 한국어 교과 성적 비교

### 가. 도농 간 한국어 교과 성적 비교

도시와 농촌지역 초등학교 3, 4, 5학년 학생들의 한국어 교과 성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모든 학년에서 두 지역의 학업성적 차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와 농촌 두 지역 간 한국어 교과 성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차가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3학년에서의 도농 간 성적 차는 2.8점, 4학년은 3.0점, 5학년은 3.1점으로 미세한 차이기는 하지만 그 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도농 간 한국어 교과 성적 비교

학년	거주지역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T
초 3	도시	606	93.36	10.55	4.33***
	농촌	695	90.55	12.75	
초 4	도시	596	88.53	11.58	4.37***
	농촌	695	85.51	13.14	
초 5	도시	655	85.32	11.02	4.62***
	농촌	629	82.20	13.05	



[그림 8] 학년별 도농 간 한국어 교과 성적 차

**나. 거주지역별 상위집단 학생의 비율**

학습진단평가 결과에서 한국어 교과 성적이 100 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위집단을 구성한 후, 상위집단 내 도시와 농촌 지역 학생들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3, 4, 5 학년 모두 도시 지역 학생의 비율이 농촌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초등학교 3 학년에서는 도시 지역 전체 학생 중 35.1%의 학생이 그리고 농촌 지역의 24.0%의 학생이 상위집단에 포함되었고 초등학교 4 학년에서는 도시 지역이 10.7%, 농촌 지역은 8.2%의 학생이 상위집단에 포함되었다. 또한 초등학교 5 학년에서는 도시 지역이 4.7% 그리고 농촌 지역이 4.6%의 학생이 상위집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 상위집단 학생의 비율에서 도농 간 차를 알아본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농 간 차는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3 학년에서는 상위집단 내 학생들의 거주지역별 차가 11.1%로 나타났으며 4 학년에서는 2.5%, 5 학년에서는 0.1%로 나타나 11.1%의 차를 보인 초등학교 3 학년과는 달리 5 학년에서는 매우 미세한 차이만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거주지역별 상위집단 학생의 비율

거주지	초등 3 학년	초등 4 학년	초등 5 학년	계
도시	213(35.1%)	64(10.7%)	31(4.7%)	308(16.6%)
농촌	167(24.0%)	57(8.2%)	29(4.6%)	254(12.6%)
$\chi^2$	5.56	0.40	0.06	5.18

**다. 거주지역별 하위집단 학생의 비율**

하위집단 내 거주지별 학생의 비율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그 차이의 유의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등학교 3, 4, 5 학년 하위집단에서 모두 농촌 지역 학생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도시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농촌 지역 학생들이 하위집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도시와 농촌 간 하위집단 학생의 비율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차에 있어 별다른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초등학교 3 학년에서는 3.4%의 차를, 4 학년에서는 2.6%를, 5 학년에서는 3.3%의 차를 나타내 학년의 변화에 따라 도농 간 하위집단 내 학생의 비율 차는 그리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거주지역별 하위집단 학생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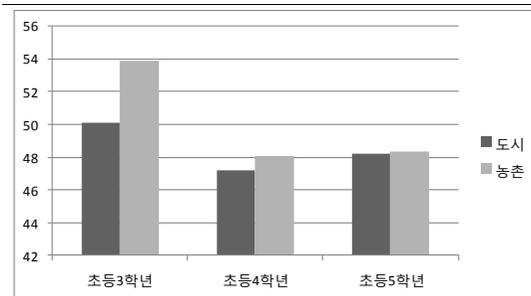
거주지	초등 3 학년	초등 4 학년	초등 5 학년	계
도시	21(3.5%)	22(3.7%)	21(3.2%)	64(3.4%)
농촌	48(6.9%)	44(6.3%)	41(6.5%)	133(6.6%)
$\chi^2$	10.56**	7.33*	6.45*	24.16***

**라. 하위집단의 거주지별 한국어 교과 성적 차이**

초등학교 3, 4, 5 학년 하위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과 성적에서의 도농 간 성적차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위집단 학생들의 한국어 성적에 대한 거주지역별 차이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시와 농촌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내 보였다. 즉 초등학교 3, 4, 5 학년에서 도시 지역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농촌 지역 학생들보다 높았던 전체 학생 집단과는 달리, 하위집단에서는 모든 학년에서 농촌 지역의 성적이 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집단의 이러한 도농 간 차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는 도시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농촌 지역 학생들보다 우수하다는 일반적 통설이 하위집단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하위집단에서의 거주지별 한국어 교과 성적 비교

거주지	t 검증	초등 3 학년	초등 4 학년	초등 5 학년	계
도시	평균	50.09	47.22	48.20	48.49
	표준편차	17.75	10.55	8.67	12.80
농촌	평균	53.89	48.09	48.34	50.26
	표준편차	18.37	11.76	10.13	14.27
	t 검증	-.79	-.29	-.05	-.83



[그림 9] 하위집단에서의 거주지별 한국어 교과 성적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과에서 나타나는 남녀 학생 간 학업성적의 성차 양상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한국어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성적 점수대별 성별 분포와 학년의 변화에 따른 성별 성취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도농 간 학력격차의 문제에 초점을 한국어 교과에서의 거주지역별 성적 차 그리고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학생들의 거주지역별 비율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어 교과 성적에서의 남녀 별 성차는 초등 단계에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2학년 단계에서 이러한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그 차가 초등학교 단계에 비해 다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별 간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교과로 언어영역 교과를 제시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즉 많은 선행연구(MacDonald, 1980; Thomas, 1989; Wong, Lam & Ho, 2002)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학생은 언어적 능력과 관련된 교과인 문학이나 언어학에서 우수하고 이 교과에 대한 성취가 우수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본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둘째,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한국어 성적에서의 점수대별 성별 분포를 비교하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90 점 이상 고득점자들의 성차가 현격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여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거주지역별 한국어 교과 성적을 비교한 결과, 학업성적에 있어서 도농 간 지역 차 현상은 한국어 교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격차 또한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도시 지역 학생들의 한국어 교과 성적은 농촌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두 지역 간 이러한 성적 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적은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 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 대책에도 불구하고 도농 간 학력격차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책과 방안들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시도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학력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권오남, 임형, 박경미, 허리금 (1997). “수학 검사의 난이도에 따른 성별 성적”. <대수수학교육학회>, 7(1). 199-209.

2. <양심이 살아있는 교육을 해 주세요>, 2012.11.27, 브레인미디어.
3. Aiken, L (1986-1987). "sex differences in academic achievement : A review of the literature". *Educational Research Quarterly*, 10. 25-35.
4. Ainsworth, J. W. (2002). "Why does It take a village? The Mediation of neighborhood effects on educational achievement." *Social Forces*, 81. 117-52.
5. Brooks-Gunn, J., G. J. Duncan, P. K. Klebanov, and Aber, J. L.(1993). "Do neighborhoods influence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 353-95.
6. Dornbush, S. M., Ritter, L. P., and Steinberg, L. (1991). "Community influences on the relation of family status to adolescent school performance. Differences between african americans and non-hispanic whites," *American Journal of Educatio*, 38. 543-67.
7. Duncan, G. J. (1994). "Families and neighbors as sources of disadvantage in the schooling decisions of white and black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03. 20-53.
8. Fennema, E. (1974). "Mathematics learning and the sexes: a review".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9. Hyde, J. S., Fennema, E., and Lamon, S. J. (1990). "Gender differences in mathematics performance: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7. 139-155.
10. Kahle, J. B., & Meece, J. (1991). Research on gender issues in the classroom. In D. L.(Ed). *Handbook of researchh on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pp. 542-557).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1. Maccoby, E. E., and Jacklin, D.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2. McDonald, M. (1980). Schooling and the reproduction of class and gender relation. In *Schooling, Ideology and the Curriculum*. L. Barton, R. Meighan. & Stephen (Eds.), London: The Falmer Press.
13. Thomas, A. (1989). Ability and achievement expectations: Implications of research for classroom practice. *Childhood Education*, 65. 235-241.
14. Wong, S. F., Lam, M. H., & Ho, L. C. (2002). Transvaginal sonography in the detection of retained products of conception after first-trimester spontaneous abortion. *Journal of Clinical Ultrasound*, 30(7). 428-432.
15. Wilson, W. J. (1987). *The truly disadvantaged: the inner city, the underclass, and public poli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6. Wilson, W. J. (1996). *When work disappears: The world of the new urban poor*. Knopf.